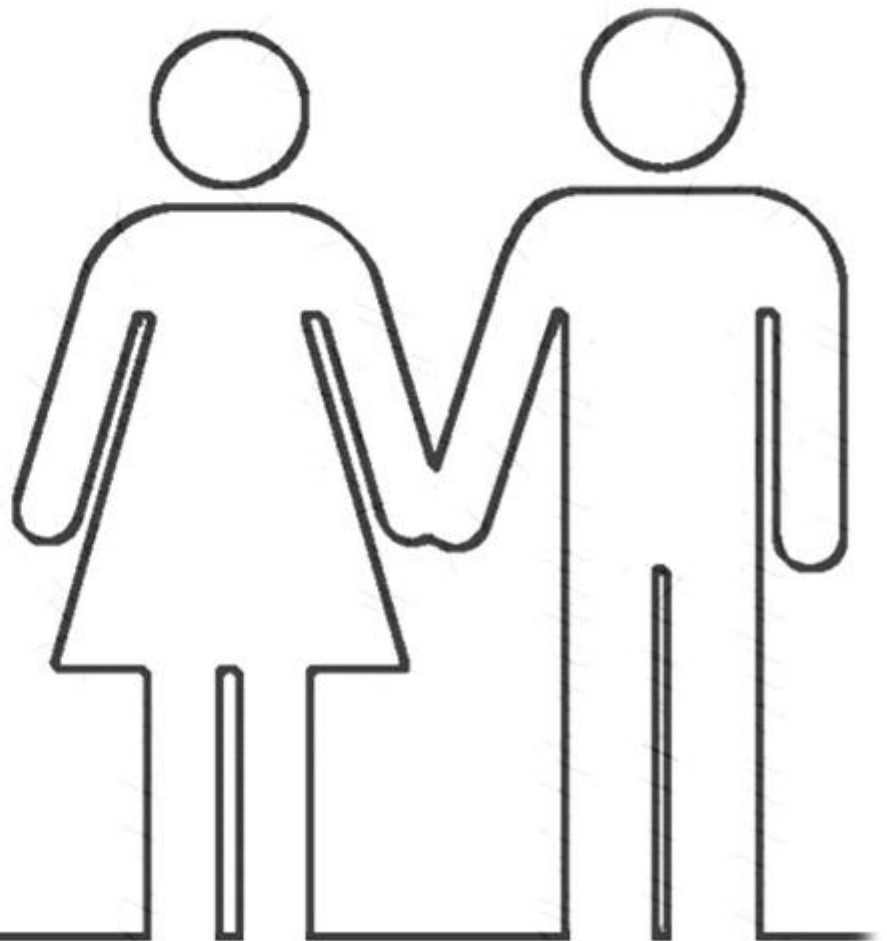


'여성혐오'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

Shall we overcome?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7시 |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 주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포럼 순서

오후 07:00~07:05(05") 인사 및 추모의 시간

오후 07:05~07:10(05") 증언1. **이 피로함을 견디길 바라는 마음으로**
_ 여 유 강남역 추모 참여자

오후 07:10~07:15(05") 증언2. **강남역의 전선前線 속에서 발견한 여성혐오**
_ 최자혜 강남역 추모 참여자

오후 07:15~07:35(20") 발제1. **혐오를 넘어서는 ‘여성주의적’ 응시의 윤리**
_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오후 07:35~07:55(20") 발제2. **남성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우리 사회 여혐의 현실**
_ 박일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오후 07:55~08:15(20") 발제3. **한국 교회, 여성혐오를 넘어서다**
_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오후 08:15~08:25(10") 쉬는 시간

오후 08:25~09:25(60") 대담

오후 09:25~09:30(05") 마무리

자료집 목차

- 이 피로함을 견디길 바라는 마음으로 06
_ 여 유 강남역 추모 참여자
- 강남역의 전선前線 속에서 발견한 여성혐오 09
_ 최지혜 강남역 추모 참여자
- 혐오를 넘어서는 ‘여성주의적’ 응시의 윤리 11
_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남성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우리 사회 여혐의 현실 17
_ 박일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한국 교회, 여성혐오를 넘어서다 26
_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교수
_ 김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대학원

발행일 2016년 7월 14일(목) | 발행인 홍정길 | 편집인 정병오 | 편집 박제민

발행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140-0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www.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페이스북] facebook.com/giyunsil



이 피로함을 견디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 유 강남역 추모 참여자

이 포럼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의 날짜와 그 날의 날짜를 확인해봤다. 2016년 5월 17일. 1달 반이 지나 있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답답한 마음에 분명 오랫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아파했는데 어느새 잊고 있었다. 고작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 나는 벌써 이 피로함에서 멀어져 있었다.

운이 좋게 여기, 살아남은 나는 이 불편한 현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별일이 생겼다.

사무실이 시끌벅적했다. 강남역에서 누군가 죽었다며 처음 소식을 전해준 동료는 굉장히 흥분해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에 나는 침착했다. 늘 있어왔던 일이었으므로 별일 아니라는 듯. 그러나 곧 기사를 검색해가며 나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강남의 한 유흥가에서 20대 여성이 죽었(살해당했)다고 했다. 이미 고인이 된 그 분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기표가 어디에서 가장 잘 활용 되는지 알려주듯 '늦은 새벽', '강남'과 '유흥'이라는 단어들 사이에서 사라졌다. 지켜왔다. 그리고 끔찍했다.

나는 왜, 어디에 아프지?

'어떤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위태롭고 위험을 겪을 수 있는지 이미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여성이 마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서 (당연히) 죽었다는 듯한 서술에 분노하면 서도 쉽게 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곧 이어 온라인상으로 퍼졌던 해시태그 문자들처럼 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동일시를 겪으며 오랫동안 슬퍼했다.

하지만 정작 친구가 강남역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다. '아, 애도해야 되는 일

이었구나하고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성 대상의 폭력이나 차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애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멀찌감치 떨어져 이 사건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찾아내는 데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고, 이 불편함에 대한 완벽한 언어를 찾으며,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만한 중립적인 태도를 갖기 위한 나의 이기적인 태도가 부끄럽기 시작했다.

나의 안녕을 넘어서

한 술자리에서 ‘여성혐오는 남성들에게만 있지 않다.’ 는 한마디에 오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분을 뵈는 적이 있다. 본인에게는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너무 억압적이고 크다고 했다. 하지만 ‘혐오’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 많은 맥락을 알지 못하더라도, 여성 대상의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인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결국 이 에피소드를 통해 내가 깨달은 바는 내가 처음에 그랬듯이 ‘나에게 향하는 비난에서 강렬하게 벗어나고픈 욕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분은 계속 당사자가 아니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타인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기 전에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던 일들에 공연히 나서서 ‘비난받을 두려움’과 ‘갈등에 휩싸일 피로감’이 ‘나의 안녕’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상처받지 않고 싶은 세상인데 타인의 문제로 굳이 골치 썩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 늘 사소한 존재로 위치 지어져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피로함을 목격하고 해석하는 것 같았다. 사회문제를 보고도 바르게 말할 수 없는 사람,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람, 문제를 바로 볼 여력이 없는 사람, 혹은 보고 싶지 않아 피하는 사람들까지, 나의 소심함과 이기심도 뒤늦게나마 눈치 챘듯이 각 개인의 무력하고, 피로한 마음들이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선택한 일은 나라도 이 사회의 피로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직시하고 조금 베풀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말을 붙여보는 것. 결국 나 같은 겁쟁이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함께 슬퍼해주고, 이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얘기해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이었으니 이제 이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한동안 유행했던 ‘나만 아니면 관찮아’라는 태도의 복불복 게임처럼 그 즐거움을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이 게임의 희열은 나만 살아남았다는 데에서 오는 짜릿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연히 살아남은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그 불편함에 공감을 해줄 때이다.

함께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

내가 자주 가는 곳, 일상적으로 들를 수 있는 장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직적접인 공포보다 사건 이후 벌어진 갈등양상을 통해 오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여성의 경험들을 무화시키며 여전히 침묵하기를 바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더 공격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사회 문화적 폭력에 더욱 공포스러웠다. 아마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에 며칠 동안 뜬눈으로 밤을 새운 건 내가 그동안 겪은 차별과 폭력의 상황들에 이름을 붙이며 정리해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남들은 쓸데없는 짓이라 했지만 이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것, 내가 겪은 것이 분명한 폭력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경험을 믿(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침묵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이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다. 사실은 내가 겪은 여/성폭력이 쉽게 잊혀 지지 않았었고, 고통스러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존재하며,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멀어질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고민하느라 너무 쉽게 나 자신을 포기했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느라 여전히 친구라는 범주에 놓여 있는 그들과 예전처럼 지내지 못할 테니 적극적으로 내 편에서 지 못할지라도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도 부탁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두서없이 모두 말하고 났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힘든 일인지 공감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본인은 상상도 잘 안된다고 더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가해자인 그 사람 편에서 일어난 일을 걱정 말라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아보)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이 작은 위로가 내게 가장 큰 힘과 변화를 주었던 것 같다. 이 사회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데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수많은 타인과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괜찮지 않다고 말해 줄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 글을 통해서야 비로소 고구마 백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안에 어떤 감정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안쓰러움과 미안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쉽게 용서하지 못했던 부족한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강남역의 전선_{前線} 속에서 발견한 여성혐오

최자혜 강남역 추모 참여자

사실 저는 이곳에 나와 증언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장로회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활발히 여학우회 활동을 하며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막상 강남역 사건 이후 강남역을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건이 났던 그 주 일요일 강남역에서 개인적인 약속이 생겼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우연찮게 추모공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여성(으로 대표되는 그룹)과 남성(으로 대표되는 그러나 전부 남성)의 두 그룹의 전선(前線)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개입하지 않았고 길을 가는 시민들의 통행을 안내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두 가지 특이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첫째로 남성들을 향해 항의하는 여성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때 마스크를 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을 드러내기가 떳떳하지 않던 모습, 그 모습이 강남역 추모현장에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범죄자가 아닌 추모자들에게 마스크를 끼게 합니까? 마스크를 끼는 행동의 기저에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과 나무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얼굴이 알려져 혹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끼고, 사진이 찍혀 누군가에게 놀림거리가 될까봐 조심하려고 끼고, 주위사람 누군가 왜 이런데 나서느냐고 나무랄까봐 끼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검은 옷을 입은 상대편 남성들은 어깨를 피고 고개를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떳떳하게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낀 여성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가끔 마스크 안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위축되어야 하는 이 구도는 수천년간 지속되어 온 여성혐오의 역사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말끔한 정장차림을 한 저에게 남성 그룹 사람들이 동조를 구했습니다. 퇴근 후 들른 길이기엔

웃차림이 달랐고 그들이 보기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여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하던 남성 몇몇은 몸에 붙는 투피스 정장과 하이힐을 신은 저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 여자들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비정상적이게 생각하는데요...” 그는 얼굴이 불그락해졌지만 소리를 지르지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고 떠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부류의 여성”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배신감과 저에게 한방 먹은 당혹함이 작용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외모와 옷과 분위기 등으로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일은 여성혐오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그들의 사상적 보루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신성시되는 성녀’ 혹은 ‘대상화되는 창녀’가 아닌 입체적 인간으로서의 여성상이 존재해오지 않았기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범죄냐 아니냐의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 내에 여성혐오가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혐오 자체가 명백한 사회문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그렇다면 이런 구도 속에서 여성혐오¹⁾ 프레임을 종식시키는 출발점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았고, 모든 남성들이 여성혐오의 “공범자”²⁾임을 인지하는 데서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저는 학벌중심주의의 공범자입니다. 소위 ‘정상인’의 삶의 패턴에 최적화된 우리 도시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저는 장애인 학대의 공범자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시선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저는 이성애중심주의의 공범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공범자인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³⁾ 여성혐오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인정’과 ‘기억’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타자가 하나의 대상인 ‘그것’으로 전락하고 사물화되는 것을 막아주며, 근원거리를 유지하는 것, 타자를 그의 다름 속으로 놓아주는, 그 속으로 멀어지게 하는 초월적인 예의(Anstand)를 창출하는 것”⁴⁾ •

1) 이에 대비되는 단어로 등장한 “남성혐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혐오라는 말 자체는 주변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마치 흑인차별이라는 말이 있어도, 백인차별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2)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은 옳지 않다. 잠재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공범”을 폭력과 같은 특정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구조 안에서 실질적인 공범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여성혐오 문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했기에, ‘등장한’ ‘발생한’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불거진’ 혹은 ‘나타난’이라는 표현이라고 쓰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4)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42-43p.

혐오를 넘어서는 ‘여성주의적’ 응시의 윤리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인간 두 종류야, ‘우리’ 대 ‘그들’

인간 생명이, 자유로운 개별자들이 어찌 딱 둘로 구분될까? 그럼에도 인류는 빈번하게 ‘둘’ 사이에 금을 그었고 그 둘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다. 신자와 불신자(자주 기독교인과 이교도들), 의인과 죄인, 문명인과 야만인(주로 서구인과 비서구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토박이와 이주자, 갑과 을, 보수와 진보...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러나 최근 들어 극명하게 공론화된 적개심을 표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금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어졌다. 아니 전투적으로 집단화된 구체적인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일베’ 대 ‘메갈’ 사이다.

‘일베’는 최근 수년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조롱과 패러디로 일찌감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이니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메갈’은 메갈리아의 줄임말인데 불과 1년여 남짓한 역사를 가지는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이다. 메르스 사태가 있던 당시 일베의 성차별적 편견과 오해로 빚어진 남녀간 혐오 갈등으로 촉발된 데다, 가장 주된 저항의 방식으로 ‘미러링’을 택하고 있음을 천명하며 현실의 젠더위계를 뒤집은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에서 이름을 따오느라 ‘메갈리아’라는 합성어가 되었다 한다. 평소 가부장적 시스템에서 여성비하적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똑같은 응시를 남성을 향해 퍼붓는⁵⁾ 인터넷 공간으로서 주로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을 그 회원으로 한다. 이번 ‘강남역 10번 출

5) 기독교인들이 듣는다면 신성모독이라고까지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필시 불편함을 드러냈을 ‘갓속’이라는 별칭은 가부장적 응시를 미러링한 ‘가모장적 [사이다] 발안’으로 인해 붙여졌다. “자고로 술은 남자가 따라야 제 맛이 지.” “어디 남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나대고 그래?” 평소 여성들을 향해 던져진 말들이 그대로 ‘미러링’되어 남성을 향하고 이에 젊은 여성들이 열광한다. 그녀는 최근 ‘걸크러쉬’(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여성들의 애정공세)의 중심에 있다.

구'를 추모를 넘어 여성주의적 운동의 공간으로 만든 중심 세력이기도 하다.

이 젊은 여성들이 온라인상의 미러링에 만족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공적(公的) 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는 2016년 5월 17일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있었던 여성 살해 사건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메갈리안'들은 남성 잡지 「맥심」의 남성 모델이 여성을 납치, 포박하여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 채 폼 나는 마초적 표정으로 찍은 표지 사진을 문제시 삼아 해당 잡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강간을 부추기고 폐륜적인 인증샷을 공유하던 '소라넷'의 폐지와 그 운영진의 검거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오프라인'의 세계를 바꾸는데 힘을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메갈리안 회원들만의 결집력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이를 운동성이 강한 집단적 목소리로 응집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만 장의 포스트잇 메시지들은 비참하게 스러진 한 생명에 대한 애도를 넘어 여성혐오적 응시와 행동을 그칠 것을 촉구하는 공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집단화된 여성들의 공적 반박,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2만장을 넘겼다는 포스트잇의 내용들은 경향신문사에 의해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고(『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어떤 애도의 싸움의 기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한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작업은 공적 저항을 위해 매우 중요한 1차 작업이다. 수많은 공적 발언들 중에서 특히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주목해보았다. 추모와 애도의 표현에 있어서는 남녀노소에 차이가 없었다. 단 젊은 여성들이 적은 것이 분명한 포스트잇의 내용들은 피해자와의 동일시로부터 오는 공포,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문화적, 사회적 폭력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자라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신이라는 꽃이 저버렸습니다.” “새벽 1시, 강남 CGV에서 나온 나는 운 좋게도 살아남았다.” “나는 ‘여자라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사회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자라 살해당했다.” “살女주세요. 살아男았다.” “저는 여자라서 유명철보다 먼저 죽습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의 이야기가 될 일이었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21세기가 맞나? 출생이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가꾸어갈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고 외치며 출발했던 ‘근현대’(modern)라는 사회가 정점을 찍고도 한참을 지난 시점이다. 이제는 그 어느 직업 기회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어림없는(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세상이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운명이 아닌 사회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왜 여자들은 비하와 혐오의 시선을 넘어 강간, 살해위협과 실재의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해야 할까?

공적 응시와 사적 응시 사이에 작동하는 일종의 칸막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공적 공간에서는 성별 떼고 실력과 전문성으로 승부하라 하면서도, 사적 응시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부장 문화의 습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공적 세계에서는 능력 발휘와 업무 수행에 있어 ‘양성평등적’으로 임하되, 사적 활동을 할 때는 ‘약하고’ ‘수동적인 여자는 괜히 ‘적극적 공격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남성들의 범죄적 표적이 되지 않도록 늘 ‘옳은’ 복장과 행동, ‘옳은’ 시간과 장소를 명심하라고 훈육한다.

그런 ‘분열적’ 교육을 받아왔던 젊은 여성들이 수 만장의 포스트잇을 통해 반기를 들었다. “새벽 1시에 화장실을 간 것이 어떻게 잘못입니까?” “예쁜 옷 입어도 돼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돼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 무엇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말을 딸들에게 하지 마세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아들을 교육하세요.” “왜 ‘가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가 아닌 ‘피해자가 되지 말라’를 가르치시죠?” “만나주지 않는다고 폭행당하고 헤어지자 했다고 염산테러 당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나라, 이런 이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갈 때 몰래 카메라,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휴지를 걱정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의 보호’가 아니라 ‘보호 없이도 안전한 세상’입니다.” “화장실을 같이 가달란 게 아닙니다. 혼자 가도 안전하고 싶다고요.”

너희들의 응시 방식을 바꿔라. 젊은 여성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틀린 말이 아니요 여기에 반박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그동안은 왜 이 당연한 메시지를 공적인 공간에서 가시화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것은 어찌 2016년에야 가능했을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교육의 힘이다. 1954년 이래 양성평등적인 공교육을 실시해온 대한민국이지만, 전근대적 문화적 관성⁶⁾이 여전히 작동하던 지난 수 십 년간 대부분의 여성들

6) 소위 ‘전근대’로 분류되는 가부장제 5천년 문명사를 통해 여성들은 출근 통제되고 비난받고 강간당하며 살해당해왔다. 그래도 되는 존재로 응시되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대-기독교적 텍스트와 전통도 다르지 않았다. 여자 아이의 영혼이 남자 아이에 비해 두 배나 늦게 형성된다고 주장한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 여성의 월경 피가 부정하다고 해석한 것은 여자가 아니다. ‘사탄도 어찌 해보지 못한 남자를 유혹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은 여자이므로 여자들은 사는 동안 저주를 받아야한다’는 모진 소리를 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성의 역할을 오직 아이 낳는 기능에만 국한시켰던 아우구스티누스... 지면의 한계만 아니라면 한도 끝도 없이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 전통 안에서도 ‘여성혐오’ 혹은 ‘여성비하’적인 주장은 차고도 넘친다. 모두가 권위를 가진 남성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으니 그 권위는 가부장적 권위를 넘어 신적 권위까지 차지하고 수천 년을 이어오며 남성의 여성비하, 혐오를 정당화해왔다. 이런 담론과 사회 위계가 공고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들에게 ‘문화적 당연’은 ‘당연히’ 침묵과 인내였다.

은 이 ‘칸막이화(compartmentalization)된’ 문화적 응시를 그저 견디며 살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남녀혼성으로 반 편성을 하면 ‘여자들 때문에 내신 떨어진다’고 아들가진 부모들이 항의하는 시절이다. 각종 고시나 입사시험에 붙는 여성 비율이 이미 반을 넘은 세상이다. 더 이상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자신의 직업 기회나 삶의 가능성을 희생하지 않는 세대, “탈성적 전문가 개인”⁷⁾으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온 그녀들에게 여전히 가해지는 여성비하적이고 혐오적인 응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문화적 당연’이 아니다. 저항의 목소리를 시작한 운동 주체가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외부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공감과 호응을 얻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터져 나오게 된 것이 이번 강남역 10번 출구의 전경이었다.

둘째 질문은 이 목소리에 대한 ‘일베적’ 반응을 보다가 생겨났다.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포스트잇 떼기 인증샷을 비롯하여, 추모 화환을 부수고 인증샷을 올리면 천만원을 주겠다는 치기어린 제안까지 등장했다. 강남역의 포스트잇 내용들 중에도 여성들의 ‘반격’에 ‘적극적 언어폭력’으로 대항하는 메시지들이 적지 않았다. 양자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참 궁금한 일이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역사상 굳이 남자나 여자나를 따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도래했는데, 남자들이 더욱 격렬하게 ‘여성’을 하나로 범주화하여 걱정하고 혐오한다. 출생으로 보장받은(!) 단 하나 남은 기득권인 ‘남성’의 자리를 잃을까봐? 전근대 사회의 남성들이 정말 여성들이 ‘열등하고 저급하고 감정적’이라고 믿어서 여성들을 혐오했다면, 오늘날 불거진 젊은 남성들의 여성혐오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처럼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의 이전이 반세기도 안 걸렸던 사회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가부장적 여성 응시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손자들의 현실은 다르다. 분명 우리 (할)아버지는 “남자가 하늘”이랬는데, 내신 등급도 취직도 여자들이 더 경쟁적 있게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저것들(여자들)”이 공적 세계로 나온 것이 문제다. 여전히 남성우월주의적 관성을 가진 젊은 남성들이 사회에서 갖게 된 상대적 박탈감은 그래서 ‘여성’을 향한다. ‘나의 권리를 침해한 여성’에 대한 공포가 피해망상으로, 분노로, 혐오로 표현된 것이다. “한 인간쓰레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온 남성들을 모욕하지 말라. 메갈들아.” “이런 걸 계기로 ‘여혐’을 일반화하지 마라. 메태지(메갈리안 돼지)들아.” “여자도 군대 가라. 운동한 여자는 남자도 때려잡는다.”

범죄전문가들은 이번의 강남역 살해가 ‘여성혐오가 아니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조현병을

7) 단행본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대한기독교서회, 2009)에서 사용했던 나의 사회학적 용어다. 현대 관료제는 성별을 벗어버린(탈)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허용하는 시스템이고, 가장 경쟁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삶의 형태는 ‘개인’일 때 극대화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이다.

알고 있던 범인이 병적인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 개별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성을 혐오한다고 하여 모두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인의 개인적인 병증이 ‘살해라는 일탈 행위를 낳았다는 것은 맞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가 ‘하필’ 여성들을 향해서 피해망상을 갖게 되고, 살해 대상도 “화장실에 들어오는 첫 번째 여성”으로 결정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명백히 문화적 기원을 갖는다. 결론을 말하자면, 최근 수년 사이 유난히 불거진 여성혐오는 5천 년 가부장 문화가 가진 남성우월주의의 문화적 관성과, 21세기 전문성 위주의 탈성적 관료제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진취적 여성들에게 갖는 상대적 박탈감의 ‘불행한 합류’ 때문이다. ‘내 것(이라고 믿는 기득권) 지키기’의 목소리라는 말이다.

또 하나의 이유를 나는 21세기 “육체문화”에서 찾는다. 최근 소비자본주의와 융합한 성적 향락문화는 ‘애플 힙과 잘록한 허리를 가진 뒤탈미녀를 낳고 관리해주신 어머님마저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인간 몸의 주요한 기능인 노동과 재생산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들로 축소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몸의 사용처는 ‘섹슈얼한 사랑’이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열중해야 하는 활동에는 참으로 다양한 차원이 있다. 그런데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의미 있고 창조적인 일들을 다 박탈당한 오늘날의 ‘탈인격적, 자본주의적, 기계적 삶’의 한복판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 몸의 관계적 능력을 온통 성적 탐닉에 집중시켜버렸다. 십대의 아이들까지도 ‘모태솔로’임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그래서 데이트(와 성관계)를 마치 스펙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 ‘육체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분화하여 응시하게 만든다. 최근 고려대와 서울대(더구나 인문학부) 남학생들의 단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지만, 통전적인 인간을 성적 일부분으로 바라보는 응시는 기존의 젠더위계적 시선에 더하여 21세기 육체문화의 추진력을 달고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일베와 같은 남초 사이트에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과 ‘혐오 받아 마땅한 여성’을 이분화한 언어들이 차고 넘친다. 일베 사이트의 여친 인증샷들은 하나 같이 ‘메태지’의 ‘혐오스런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이번엔 여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미러링은 이런 부분화된 성적 응시에도 적용된다. “명자” “소추소심” 등의 ‘메갈리안 언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전략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울려 퍼진다.

여성주의적 응시가 갖는 보편적 사랑의 윤리

너희들이 우리를 성적 대상으로 응시하면서 비하적 표현을 쓴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지! 나오미 울프의 말마따나 “이제는 남자 차례!”다. 그러나 미러링에 대한 과도기적 효용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여성주의’(페미니스트)적인 응시의 최종 도착점은 ‘이갈리아적 세계가 아니다. 거긴 가부장적 시스템과 똑같이 ‘디스토피아’이기 때문이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유토피아’는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

의 성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이 아니다.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여성’은 실재이면서 은유다. 그동안 주체로서 자신들의 옳은 자리와 공간, 행동과 외모를 규정하고 선포할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던 ‘실재 여성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힘의 위계구조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였던 그 모든 존재들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이라는 말이다. ‘여성’이 ‘주의’를 주장해도 정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물학적 여성들의 존재론적 우월성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들이 반만년도 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집단으로부터 배제되고 하향좌표화되어 왔다는 데 공적 목소리를 낼 정당성이 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힘을 갖지 못한 다른 남성들, 다른 인종들, 다른 종교인들, 다른 계급인들, 다른 세대들을 지배와 통제의 시선으로 응시하고 멸시적 언어와 폭력적 행동으로 조정하려 했던 사회적 실재를 ‘남성/남근중심주의’라고 이름붙이는 한에서, ‘여성주의’는 ‘우리’ 집단에서 배제된 그 모든 약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보편적 패러다임이다.

이번 강남역 젊은 여성들의 포스트잇 메시지에서 인상적이었던 한 ‘범주’는 다른 아픔에 대한 공감이었다. “달아야할 리본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더 이상은 약자여서 죽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 모든 혐오를 혐오합니다.” 그게 답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응시의 방식에 있다. 배제된 자들의 공적 외침과 ‘그들’(당신이 ‘우리’ 그룹이라면)과의 연대에 있다. 이미 이천 년 전 예수께서 가르치신 윤리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태복음 5장 29절)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겠거들랑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이 준엄한 경고는, 지옥불에 대한 위협이 핵심이 아니다. 그만큼의 치열함으로 응시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이다. 이 구절은 남성들의 성적 여성 응시를 경고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비단 여성 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누구이든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전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이다. 인종이든, 종교든, 성적 취향이든, 자본의 유무든, 나이의 적고 많음이든, 이 땅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 마땅한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우리의 응시 방식을 통해 이 땅에서 계속 육신을 입어야 한다. •

남성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우리 사회 여혐의 현실

박일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2016년 5월17일 강남역 화장실 한 남성의 여성 살인사건. 아마도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가장 상징적인 이유를 필자가 인터넷 서핑 중에 포착한 사진 속 문구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남역에 붙어있는 추모 포스잇 사진들 중 하나이다:

이런 걸 계기로 '여혐'을 일반화하지마라 메태지들이

여혐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도리어 여성혐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 문구이다. 점잖게 말하자면 피해의식에 찌들은 정신이상자의 범행을 모든 남성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으로 보편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듯 하지만, “메태지”라는 표현은 여성혐오적 표현을 가장 자극적으로 표현한다.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들 중 ‘여성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페미니즘이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남성혐오’라는 이슈를 들고 여성들의 사이트들이 운영 중인데, 인터넷에 ‘여성혐오적 표현들’을 유통하는 남성들은 이 남성혐오 여성들을 “메갈리아”라고 표현한다. 한 블로그에 의하면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다 보니 뼈뿔어지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자를 혐오하는 집단사이트를 만들어 서로 부동켜 앉고 자위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림”⁸⁾이라고 ‘메갈리아’를 설명했다. 이들이 말하는 남성혐오 집단은 논외로 두자면, 이들이 메갈리아를 기술하는 표현들은 지극히 혐오스런 감정과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여성혐오를 일반화하지 말자는 목소리와 한편으로 특정집단의 여성들을 혐오스럽게 표현하고 그런 표현들을 유포하는 관행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촌스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담론들의 관행과 이러한 담론들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지는 메갈리아 담론들 모두¹⁾ ‘혐오’라는 감정적 기제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과²⁾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개념적 추

8) 다음카페, 이종격투기. 2016년7월12일 접속.

<http://cafe.daum.net/ssaumjil/LnOm/1545831?q=%B8%DE%B0%A5%B8%AE%BE%C6>

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

이 모든 반응들 속에서 필자는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지적하는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를 거듭 발견한다. 우선 이 모든 담론들의 유통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루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를 들어 ‘메갈리아’ 활동을 했을 터인데, 그들이 다수(the multiple)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인격 하나의 사람 하나의 주체인 듯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이 물어지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사이트의 메갈리아라는 용어의 설명은 ‘메갈리아’ 여성들에 대한 “혐오”를 주소재로 삼고 있는데, 이 혐오를 발산할 대상을 마치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인 듯이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곧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⁹⁾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추상적 언어 개념을 현실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여성’ 혹은 ‘남성’은 추상이다. 수많은 존재를 추상적 명사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존재들의 많은 측면들을 무시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그렇게 수많은 다양성과 다중적인 복잡성들을 깎아내어 사용하는 추상적 단어 ‘여성’ 혹은 ‘남성’은 추상으로 구성된 가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일 리가 없다. 그런데 위의 사이트들은 이 추상명사를 마치 현실의 구체적인 인격체인 듯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혐오의 원리

혐오는 “육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자극에 대한 강한 신체적 반응을 수반”해서, “본능적인 감정”처럼 보인다.¹⁰⁾ 이 혐오의 전형적인 신체적 반응은 구토이며, 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요인은 “년더리나는 냄

9)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는 추상(abstraction)을 구체적 현실로 혼동함으로써 벌어지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개념들과 단어들은 예외 없이 ‘추상’이다. 즉 구체적 현실로부터 떼 내어진 것이다. 이 추상적 인공기제를 통해 우리는 가상의 언어 세계 속에서 정보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구체적 현실 세계를 살아갈 힘을 구현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추상적 개념과 언어가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듯해도, 추상은 추상일 뿐이다. 즉 현실의 구체적 사물들은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다중적이어서 하나의 개념과 단어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언어 사용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언어가 현실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한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이런 혼동은 빈번히 일어난다. 추상적 개념을 서로 유통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다보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현실로 혼동하는 것이다.

10)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서울: 민음사, 2015), 166.

새와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외양을 지닌 대상”¹¹⁾이다. 핵심적으로 정의하자면, 혐오는 “역겨운 대상의 (입을 통한) 체내화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으로서 역겨움의 대상은 “오염물”이다.¹²⁾ 역겨움의 대상이 ‘오염물’이라는 것은 곧 혐오를 유발하는 근본 기제가 바로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혐오는 오염물로 간주되는 원초적 대상들에 대한 진화적 거부 반응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혐오는 원시 인류의 수렵과 채집 사회를 지나 온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음식물에 대한 일차적인 거부반응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로진은 혐오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했는데, 피실험자에게 동일한 물질을 두 개의 용기에 담아두고, 그 용기를 각각 냄새맡게 하면서, 한 쪽 용기에는 “배변”이, 다른 용기에는 “치즈”가 담겨있다고 말해주었다. 치즈가 담겨있다고 들은 사람은 그 향기를 좋아했고, 배변이 담겨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냄새가 “역겹고 불쾌하다”고 느꼈다.¹³⁾ 이 실험을 통해 혐오를 유발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념적 요소”가 혐오 유발의 직접적인 인자임을 알게 된다.¹⁴⁾

혐오가 대상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혐오의 대상들이 “인간의 유한성과 동물적 취약성을 연상”¹⁵⁾시킨다고 간주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즉 문화적이고 권력적인 함의를 갖는다. 혐오에 담긴 핵심은 “전염에 대한 사고”로서, 말하자면 “누군가 어떤 실천을 금지시키는 근거로 혐오를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실천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그리한다는 것이다.¹⁶⁾ 무언가 전염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은 그에 앞서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떤 집단이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혐오는 언제나 “사회적 위계의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작동하며, “대부분의 사회는 인간을 서열화해서 특정 계층을 오염되어 있고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단정한다는 것”이다.¹⁷⁾ 즉 혐오는 “사람이나 대상을 서열화해서 특정한 대상을 저열하고 천한 것으로 간주한다”¹⁸⁾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혐오의 대상 계층은 역사적으로 유대인, 여성, 불가촉천민 등이 있어왔다.

11)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66.

12)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66.

13)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67.

14)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67.

15)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76.

16)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59.

17)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59.

18)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59.

혐오는 동물적인 것에 대한 거부와 관련이 있다. 즉 혐오에 담긴 핵심적 사고는 “동물성을 간직한 동물의 분비물을 섭취하면, 우리 자신이 동물의 지위로 격하될 수 있다는 생각”¹⁹⁾ 즉 하등한 동물의 상태로 떨어진다는 생각인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 문화에서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 능력이 인간 존엄과 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성(性)이 욕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성에 대한 상상력이나 성 행위에 대한 상상력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동물적 욕정에 사로잡혀 비인간으로 전락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생물학적 남성 중 많은 이들은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성적 대상을 탐닉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이 되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발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혐오는 근원적으로 오염에 대한 사회적 사유이기 때문에 ‘순수에 대한 환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서 다른 남성의 손때가 묻지 않은 ‘숫처녀의 환상’이나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여성’이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잡는 것은 같은 동전의 반대면인 셈이다.

동물성으로의 전락에 대한 거부반응으로서 혐오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어떤 존재, 즉 동물성을 갖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려는 소망을 중심으로”²⁰⁾ 작동한다. 이는 곧 혐오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고픈 욕망이 “자기기만과 헛된 열망”²¹⁾을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인으로서 우리는 화장실을 가서,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 내가 가장 동물적인 바로 그 순간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혐오를 낳는다. 여기서 동물성으로 전락을 혐오하는 이유는 자신이 되고픈 환상의 대상과 그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이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 어떤 것도 혐오의 대상이 되며,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타자들의 문화도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혐오는 문화적 우월감을 전제로 작동한다. 적어도 그만의 환상 속에서 자신은 혹은 자신 집단은 그런 동물적 문화를 능가해 온 것이다. 동물적인 것으로 전락해 오염된 대상의 대표적인 예들이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 계급 사람들”²²⁾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혐오를 통한 억압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반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인 것이다.

유대인 혐오가 유대인을 여성만큼 혐오스러운 더러운 기생충같은 존재로 묘사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유대인 혐오보다 더 근원적인 혐오 혹은 그보다 더 뿌리깊은 혐오는 여성혐오였다. 유대인 혐오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그들을 정초시켰고, 바로 그 자리가 여성의 자리였던 것이다. 특별히

19)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70.

20)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91.

21)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92.

22)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201.

여성의 몸은 오염과 전염의 사유가 왜 혐오의 기제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동물적 삶의 연속성, 몸의 유한성과 밀접”²³⁾한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의 정액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남성의 몸으로부터 빠져나간 정액이 혐오의 대상이 된 것과 그 여성이 처녀성을 상실한 즉 순수성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중의 개념이 작동하여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에 더하여 출산은 남성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데, 출산된 자손이 자신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은 순결과 순수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강화한다. 즉 순수성을 상실한 존재는 다른 남성들에게도 오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특히 여성을 “섹스 그 자체이자 완전히 성적인 존재이며, 사실상 남성이 지닌 동물성”²⁴⁾이라는 생각이 지배할 때 배가된다. 그래서 성적으로 여성은 욕망의 대상이지만, 또한 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이 검증되는 순수성 즉 처녀성을 잃지 않은 대상에 대한 동경이 또한 끝없이 작동하면서, 욕망과 혐오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여성혐오가 “성교, 출산, 생리를 둘러싼 금기”의 주변에서 작동하는 것은 곧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육체적인 것 즉 신체 분비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동성애 혐오도 이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매우 흥미롭다. 동성애자들에게 혐오가 작동하는 경우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남성의 혐오”인데, 이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항문 성교에 대한 혐오감이다. 즉 정액과 배설물의 혼합이 야기하는 극도의 혐오감이 유발되며, 그래서 레즈비언에 대한 반응이나, 게이에 대한 여성의 감정적 반응보다 오히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 남성의 혐오반응이 가장 강렬하고 가혹한 이유가 여기 있는 셈이다. 더구나 그러한 성 행위는 한 남성을 여성으로 만들어 끈끈하고 유동적이고 냄새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더 혐오스럽게 여겨진다.

우리 시대의 페티시즘으로서 여성혐오

혐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시점은 바로 혐오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²⁶⁾ 사용할 때이다. 원초적 대상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넘어서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장 적용되면서 혐오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²⁷⁾ 사용할 때, 혐오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혐오가 작동하려면, 혐오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혐오라는 감정이 진화의 현장에서 인간이라는 유기체에게 장착되었을 때는 혐오의 원초적 대상들이 분명 있었다. 즉 개인이나

23)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207.

24)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210.

25)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210.

26)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93.

27)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93.

집단을 오염시키거나 전염시킬만한 혹은 그렇다고 생각되는 대상들 말이다. 타액, 신체 분비물 혹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서는 안될) 잔혹한 행위나 대상들. 하지만 이 혐오가 원초적 대상들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부득불 언어라는 추상의 기제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언어는 언제나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여성,” “남성”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여성 혹은 남성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특정 부류의 집단을 가상적으로 묶어 ‘셈’을 한 것 뿐이다. 바디우의 표현대로, 이러한 셈하기는 언제나 권력의 작용이다. 권력 체제는 그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숫자와 양으로 셈을 정확히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셈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들은 언제나 추상이다. 그래서 바디우는 존재는 일자(the one)가 아니라 다수(the multiple)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하나라는 개념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추상적 개념을 바로 구체적 현실로 혼동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의 낱말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왜? 추상적 개념의 구성으로 형성된 가상의 세계와 구체적 현실 간의 심연과 간격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이 발생한다: 여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 혐오’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의 역설!

여성혐오는 우리 시대에 페티시즘처럼 작동한다. ‘여성’이라는 추상명사는 구체적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각자는 특정의 구체적 인격의 여성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여성에 투사한다. 이러한 인지적 투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체로 투사된 대상은 실물의 구체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전체 여성은 이렇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제 그 전체 여성에 대한 환상을 역으로 구체적인 여성 개인(들)에게 적용할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최근 ‘포켓몬 Go’게임이 출시되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해 게임을 진행하는데, 포켓몬을 잡기 위한 몬스터볼을 가지고 게임기 맵 상에 나타나는 “포켓스톱”이라는 특정장소에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이 게임이 스마트폰 게임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구글 지도와 결합하여 게임사용자는 실제로 현실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포켓몬을 잡아야 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걸어야 포켓몬이 성장하도록 되어있다. 이 게임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게임을 하는 사용자는 가상 세계 속에 빠져, 현실을 망각하는 일이 생기거나, 현실을 가상으로 혼동하여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다. 피카츄 잡겠다고 고



속도로에서 차를 멈춰 대형사고가 난다든가, 포켓몬 찾아 시체를 찾는다든가, 앞을 제대로 보고 걷지 않다가 사고가 나 응급실 신세를 진다든가 등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금 우리의 ‘여성혐오’는 바로 이런 증상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가상의 환상대상(objet-a)로서 ‘추상적 대상’ 여성을 품고 있다가, 현실 속에서 그러한 환상의 대상과 유사한 인물로부터 거절당해 분노를 품거나 혹은 그 환상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을 혐오하거나 하는 행위는 ‘자신을 생물학적 남성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아직 그들만의 환상 속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한 욕망의 대상들이 ‘환상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환상인줄 모르기 때문에 환상-대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성(性 sex)과 혐오

버틀러의 논리를 따르자면, 성은 젠더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하는 젠더를 통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성’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경계는 바로 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래적인 것들 중 어떤 것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배척함으로써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바로 이 지점에서 ‘혐오’가 작동한다. 아주 본래적으로 ‘혐오’란 감정은 우리의 사회적 소통과 이해를 가능케 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문제는 그렇게 구성되는 성적 정체성을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으로 절대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로 성을 이해하려는 완고한 이해구조에 성적 소수자로서 버틀러는 성이란 구성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성적으로 순수한 정체성’의 신화 속에 내재한 폭력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혐오는 ‘저런 건 여성이 아니라’라는 전제로부터 작동한다. 예를 들어, 여성혐오 집단은 메갈리아 집단을 자신들이 가장 혐오하는 모습의 여성(적 외모)로 묘사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추구하는 여성과 자신들이 성적으로 혐오하는 모습의 여성을 구별하고, 후자를 여성이라는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이 작동할 때, 혐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감정적 신호이다. 역으로 남성혐오자들인 메갈리아가 ‘남성’이라는 추상적 집단을 ‘한남총과 ‘씹치남’으로 규정할 때, 그들의 개념적용에 ‘혐오’가 작동한다. 혐오의 대상으로서 남성으로부터 그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지닌 남성들이 빠지는 것이다. 이 대칭적 혐오 기제의 작동 속에서 ‘혐오’의 기제가 보다 본래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여성혐오’를 발산시키는 쪽이다. 왜냐하면 혐오의 대상과 욕망의 대상이 이분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남성혐오는 바로 이런 이분법적 기제에 대한 혐오와 저항과 분노의 표현일 수 있을 것이다.

혐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혐오의 감정이 분노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

오는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며, 따라서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과 또한 “인간에게 자신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²⁸⁾ 분노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의 반응으로서, 이 부당한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동반되며, 아울러 그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동조할 이들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 즉 분노는 “공적 설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이성적 근거”²⁹⁾가 있다. 물론 분노가 언제나 건전하고 권면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분노라는 감정에는 공적인 이성의 토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혐오와 다르다.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인들을 혐오한다는 것은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우리가 단순히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더러운 민달팽이처럼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 혐오를 통해 유발되는 반응은 그 부패한 사회의 개혁이나 혁명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고 깨끗한 즉 그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곳으로 이민가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도피 환상”³⁰⁾인 것이다. 그래서 너스바움은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는 저항과 건설적인 참여라는 목표를 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는 도피와 방기로 이어지기 쉽다”³¹⁾고 경고한다.

가부장적인 위계질서가 살아있는 사회구조 하에서 여성을 향한 혐오는 이런 도피와 방기의 기제로 활용된다. 즉 여성혐오가 발산되는 사회는 사회적 문제나 오염 혹은 전염의 원인을 ‘여성’이라는 추상명사에 투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피하거나 감정의 출구를 모색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주입받은 개인들이’ 특정의 성적 환상을 공유하면서, 여성이라는 추상명사를 상품화된 대상 속에서 탐닉하고, 그녀의 환상대상이 되는 환상을 꿈꾸다, 현실의 여성으로부터 거절 당할 때 품게 되는 분노는 ‘현실’과 ‘환상’ 간의 차이와 심연을 의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증상이다. 이러한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는 오류가 작동하는 이유는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면서 심화된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가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결합된 사회에서 ‘남성’은 생물학적 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남성은 ‘알파메일’(alpha male)을 의미한다. 하지만 알파 메일

28)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86.

29)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89.

30)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97.

31)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98; 이런 점에서 메갈리아라는 집단이 ‘여성혐오’를 미러링(mirroring)해서 ‘남성 혐오’를 발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혐오와 분노가 결합한 기제이다. 이 혐오/분노가 현실상화의 개선을 위한 기제로 작동한다면, 이들의 감정 표현은 혐오의 극복이 되겠지만, 혐오는 현실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바꾸려는 의지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의 관성에 말려들어, 남성혐오를 현실도피의 기제로 사용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해법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위험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이다.

은 집단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물학적 남성 혹은 자신이 남성이라고 사회적으로 주입받아온 존재들은 모른다. 알파메일은 사회적 위계를 정하기 위한 가상의 기준 혹은 상상의 이상이지만, 그 이상(들)을 모두 갖춘 남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적 허구일 뿐이다. 그래서 알파메일이 되지 못한 생물학적 남성들은 거의 또는 전부 ‘알파메일이 되지 못한 상처와 좌절감’을 주입받으며 살아왔다. 이 상처와 좌절이 혐오와 결합하면 스티븐 카가 된다. 애플래치아 트래일 근처 숲 속에서 숨어 지내는 유랑자 스티븐 카(Stephen Carr)는 야영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명의 레즈비언을 총으로 쏘아,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는데, 일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열린 재판에서 그는 “레즈비언 여성들의 애정행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혐오와 불쾌감에 휩싸여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³²⁾이니 과실치사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혐오의 극복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자신의 극복문제일 수 있다. 즉 남성적 환상의 극복, 남성적 환상이 담지하고 있는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에 대한 치유인 것이다. •

32)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4.

한국 교회, 여성혐오를 넘어서다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외문화 교수

김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외문화 대학원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여성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연히 죽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볼 지점은 그들의 반응이, 피해자 개인을 향한 슬픔과 추모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행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경험이 편재해있으며, 그들 역시 ‘묻지마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새삼 인식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21세기에도 여성들이 겪는 차별의 경험은 모든 일상 속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생활현장, 일터, 거리 곳곳에서 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여성혐오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혐오로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여성을 원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여성은 인격이 아닌 성적인 차원으로만 대상화됩니다. 남성의 여성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대상화시킨 성의 몸을 탐닉하고 파괴하고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마성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열등하고 불결하며 이해 불가능한 생물에게 욕망을 충족해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여성혐오의 실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성적 폭력은 제어할 수 없는 성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경멸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안의 여성은 대상화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딸들이고 누이이며 아내이고 어머니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형상에 근거한 급진적 평등성, 인격적 성 관념에 기초한 육체와 정신/몸과 영혼의 통합적 이해, 그에 따른 생명존엄성의 복음적 가치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여성혐오는 극복해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살인사건의 경우, 단순히 한국 사회 안에서 편만하게 일어나는 여성혐오에만 국한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심지어 사건 직후 범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회 여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여성문제와 여성혐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뿌리 깊은 여성혐오의 역사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혐오의 역사와 기독교 전통

여성혐오(misogyny)는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문화적 현상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은 여성멸시와 여성비하의 반여성적 가치를 동반하고 성별 이원적 젠더질서의 뿌리를 형성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성혐오는 문명의 발전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때로는 강화되어 왔으며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여성에 대하여 다양한 억압의 현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부장제는 기원전 7000-4000년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 형성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세계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문화 종교문화는 가부장제적 문화와 사회적 토대 위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이렇듯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의해 구성된 기독교 전통 신학은 여성을 이원론적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즉 성서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성녀 마리아의 상징으로 여성을 범주화하여 분리시킵니다. 그러한 관점은 때로 유혹하는 창녀를 필요로 하고 가정에서는 정숙한 무성적 여성을 요구하는 남성의 이중적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때, 육적 여성화와 영적인 여성다움은 한 여성의 몸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동일한 한 여자에 대하여, 그가 바라는 변화되고, 거듭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그녀를 사랑하지만, 반면 그녀에게서 썩어 없어질 부부관계, 성관계, 아내로서의 고유한 속성들 모두를 증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녀로서의 영적인 모습은 추앙하지만, 창녀로서의 모습은 멸시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성은 그리스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입장은 매우 오랜 시간 기독교 전통 안에서 고착화됩니다.

중세 후기의 교회 문화는 고대의 범주를 금욕주의적 관점에서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몸을 상징하며, 동정녀 마리아로 상징되는 영적인 여성다움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수녀조차도 남성을 타락시키는 위험들을 몸속에 지니고 있는 위험물로 여겨집니다. 그녀들의 육체적 존재는 남성의 영혼을 육적인 욕망으로 끌어내리고 결국은 영원한 천벌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직자의 여성혐오증은 여성의 육체를 격렬한 혐오의 이미지와 파멸의 이미지로 보게 합니다.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할 성직자를 유혹해 타락시키는 ‘마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여성혐오 문화

최근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문화로 강한 배타성과 가부장적 질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1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선교 초기만 해도 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평등의 문제에 앞섰습니다. 당시 복음은 양반과 일반 백성, 상전과 종,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평등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입각해 성숙한 양성 평등의식을 가진 수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 덕분에 여성을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관습과 전통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여성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어느 사회조직보다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존여비의 유교적 전통과 남성 중심적 전통 기독교 사상이 만나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 심각한 여성 차별적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신학은 여성을 원죄와 관련시킵니다. 여성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하여 사탄에게 유혹 받기 쉬운 최악의 원인 제공자이며 남성에 비해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유대 사회의 순결과 오염의 이원론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계약백성으로 이해했으므로 부정할 것에서 멀리 떠나 거룩하고 순결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할 것의 목록에는 이방제이는 물론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욕이나 생식, 월경과 출산 시에 여성이 흘리는 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2세기 터툴리안과 같은 교부는 ‘여자는 악마의 출입구’라고 설교했으며, 여전히 서구 기독교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거스틴은 “남성은 혼자서도 하느님의 완전한 형상을 지니지만 여성은 혼자서는 결코 그 형상을 지니지 못하며 오직 ‘여성의 머리인’ 남성과 함께 할 때만 그 형상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성신학자 로즈마리 류터는 “(어거스틴에 따르면) 여성은, 혼자서도 자율적인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는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상대적 존재(relative being)로 규정된다. 여성에 대한 이 견해는 아마도 여성혐오사상(misogynism)의 결정적인 핵심일 것이다.” 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세 교부신학은 정신에 대한 육체의 반역을 죄로 보았습니다. 이원론적 구분에 의해 육체는 여성을

상징하며 정신은 남성을 상징하므로, 남성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육체, 즉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의 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에 대한 육체의 반역을 죄로 보는 기독교의 여성 이해는, 남성의 여성혐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성의 성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을 훌륭한 신앙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육체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를 독립적으로 짓지도 못합니다. 죄의 결정은 오로지 정신이 해야 하므로, 앞서 류터가 언급한 것처럼 여성이 남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건강한 주체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혐오의 인식과 발언들이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동어반복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러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여성혐오를 걸러 내거나 재해석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성혐오로 재생산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서 텍스트와 기독교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 교회³³⁾는 여전히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로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여성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성혐오가 남성에게 여성멸시로 표현되지만, 여성에게는 자기혐오로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는 여성들에게 자기멸시 혹은 자기 비하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차별적 교회 문화를 신앙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주 겸손과 자기비하를, 그리고 교만과 자아 존중감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성혐오의 메시지를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나마 변화의 의식이 있는 여성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혐오를 주입시키는 메시지를 객관화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필사적인 주체적 노력보다도 더욱 강하게 몰아매는 여성혐오 문화에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집행되는 영적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성혐오를 넘어서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불평등한 위계적 여남 관계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창조 원리는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가장 엄중하고 근원적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하나

33) 이번 여성혐오 포럼에 대한 기윤실의 페이스북 홍보글에 어떤 남성이 댓글로 “비성경적인 이상한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까 저어” 된다고 적었는가 하면, 또 다른 남성은 “기윤실도 혹시 좌편향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여성 문제를 성서의 문자적 해석에 기초해 바라보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 안에 여전하다는 사례입니다.

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말씀을 기초로 차별을 극복하며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전제가 됩니다.

최근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일부 교회 여성들이 한국 문화와 기독교 신학 전통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새로운 성서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여성혐오의 움직임을 남성혐오로 인지하는 등의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혐오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로 여성혐오와 동일선상에서 남성혐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남성을 증오할 수 있으나 제도적,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수천 년 이상의 역사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여성혐오와 달리 이른바 ‘남성혐오’는 일시적 편견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전체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성혐오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식의 깊은 곳까지 내면화하고 내재화한 탓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모든 것을 뒤집듯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뿌리 깊이 내재해 있는 신학적 전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실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끊임없는 의식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 교회의 여성혐오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 교회는 여성혐오에 대한 근원적 책임을 통감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여남 불평등문화 인식을 양성평등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나 인간이 허락하지 않은 양성평등이, 관습과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여성혐오 문화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성서에 적힌 여성혐오 메시지를 현대에 적합하게 재해석하고 이를 양성평등의 메시지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매우 요청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최근 한국 교회는 교세 감소와 사회적 신뢰도 하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문화를 가부장적인 문화와 교회의 배타적 자세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 교회가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교회의 질서와 제도 정책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즉, **평등과 섬김의 가치 위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상호 섬기는 리더십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함께 동

역하는 것은 남성의 역차별이나 여성의 기득권 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등한 공동체로 거듭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셋째,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여성혐오를 지속시키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성과 남성이 연대해야 합니다.** 여성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여남의 대립적 구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섬기고 격려하며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힘겨운 현실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여성혐오는 여성만 나서서 해결될 일도 아니며 남성만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여성혐오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공감한 남성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성별의 문제를 떠나 이 사안에 공감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며,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앞장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장선 사람들에게 의해 조금 더 바람직한 양성평등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여성의 주체의식과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연대한 여성들은 굉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여성혐오 살해가 있었지만, 이전처럼 여성 변사체 발견으로 그치지 않고 매스미디어의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포스트잇을 붙인 여성들 덕분이었습니다. 충분히 수많은 여성혐오 사건들 중 하나로 개별화될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된 데에는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의식적으로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다름 아닌, 여성혐오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남역 사건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님에도 강남역까지 와서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 저항의 공간을 만들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나 남성의 다수가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로 보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진보적 신학적 관점의 소유자, 더 나아가 여성에게 협조하거나 연대를 맺고 있는 남성까지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것에 불쾌감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소리를 공적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불안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약자를 편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존중하고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We shall overcome!

